

불감청고소원 감행기(不敢請固所願 敢行記)

이수형 | 문학평론가



박민규 소설의 1인칭 서술은 인과 혹은 시간의 통상적인 흐름을 단절하는 행갈이와 쉼표를 자주 사용하는 특유한 문체로 인해 ‘말’이라고 지칭될 수 있다. 1인칭 주인공들이 그러한 문체로 말하는 소원 성취의 드라마가 바로 박민규 소설의 ‘자기 표현’의 핵심이다. 앞으로 어떤 가공할 소원 성취가 펼쳐질지 기대해 보자.

박민규의 소설, 특히 단편은 서사나 묘사로 분석하기보다 우선은 그냥 ‘말’이라고 보는 편이 적당할 듯하다. 소설가 김영하가 “구어이면서도 동시에 문어인 (……) 신언문일치체”라고 지적하기도 한 박민규의 1인칭 주인공 서술을 ‘말’이라고 지칭하고 싶은 이유는 물론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이는 구어나 “대략 망했다는 얘기, 되겠다”와 같은 인터넷 식 화법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박민규의 소설이 그런 언어로 점철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 반드시 그 때문만은 아니다. 뭐니 뭐니 해도 박민규 소설의 1인칭 서술은 ‘말’이 아니라 ‘글’인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말’이라고 지칭한 것은 사실 그 특유의 문체라고 바꿔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문체란 논리나 인과 혹은 시간의 통상적인 흐름을 단절하는 잣은 행갈이와 쉼표 사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박민규의 문체를 ‘말’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언문일치에 대한 환상 때문일 것이다. 언문일치라는 것이 말을 글과 일치시키는 것도, 글을 말과 일치시키는 것도 아닌, 새로운 언=문의 창출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문일치란 말을 글로 바로 옮기는 것이라는 통념이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 근대에 들어서 ‘자기’를 표현하는 형식으로 발명된 언문일치가 말을 글로 옮기는 것으로 오해된 이유를 저 플라톤 이래의 음성 중심주의에 기원한 의식의 현전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요컨대 자기라는 것이 자명하게 존재하고 그 자기 자신의 음성(말)을 들을 수 있는 반면, 문자는 단지 음성을 옮긴 데 불과하다는 생각이

언문일치의 오해를 낳았다는 것이다. 박민규의 문체를 ‘말’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다소간 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표현의 직접성과 관련되어 있다.

말을 글로 옮긴 것이든, 새로 글을 만든 것이든 간에 이미 백년 이상 언문일치를 겪어온 우리는 그래서 자기 표현에 능수 능란하게 되었을까? 그러나 다들 짐작하다시피 우리는 자기 표현에 능숙하지 못하며, 또 짐작하다시피 능숙하지 못한 이유는 언(言) 탓도 문(文) 탓도, 그렇다고 언문일치 탓도 아니고, 실은 자기 탓이다.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자기 표현을 능히 해 내겠는가? 오히려 언문일치라는 제도와 관습이 그래도 간신히 우리의 자기를 만들어주지 않았던가? 우리는 언문일치에 맞춰 자기의 생각과 욕망 따위를 학습해 왔던 셈이다.

‘말’로 불리는 박민규의 특이한 문체

박민규의 문체를 굳이 ‘말’이라고 부르고 싶은 이유는, 거기에는 물론 말이 세 치만큼 ‘자기’와 가까울 것이라는 오해가 개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의 소설에 언문일치로서의 글에 맞춰진 ‘자기’와는 다른 ‘자기’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체로부터 시작했지만, 이 글은 박민규 소설의 ‘자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카스테라』에 수록된 단편에서 ‘자기’, 즉 ‘나’는 무엇보다 곤궁한 삶의 체현자로 등장한다. ‘가족경제 위기극복기’인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에서 ‘나’는 방학 내내 주유소, 편의점, 전철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물론 가난하기 때문이다. 온갖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시급 천 원이나 천 오백 원을 받는 것을 ‘산수’라고 부르는 ‘나’는 마흔 다섯에 시간당 삼천 오백 원을 덧셈하는 ‘아버지의 산수’를 대물림 받았다고 털어놓는다. “아버지 돈 좀 쥐” 같은 말을 하지 않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나의 산수’는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아니었으므로, 누구를 원망할 성질의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또 “세상은 한 방이야”라는 친구들의 말에 “결국 이들도, 같은 산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나’에게 그 모든 사정은 일종의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박민규 소설의 세계는 다분히 결정론적이다. 전지구적 자본의 시대를 맞아 활짝 개화된, 『지구영웅전설』과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의 미국 자본의 음모나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의 산수, 「코리언 스탠더즈」의 ㉠가 그런 사례로 적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에 수학 정도가 필요한 인생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삶은 산수에서 끝장이다. 즉 높은 가치의 일을 따먹듯 — 균등하고 소소한 돈을 가까스로 더하고 빼다보면, 어느새 삶은 저물기 마련이다”. 말하자면, ‘나의 산수’란 곱셈과 나눗셈에도 미치지 못하고 고작해야 기린이 일을 따먹듯, 더하기 빼기해서 합이 0을 만드는 계산에 불과하다. 물론 그 계산마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출발부터,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의 열차다. 한 량의 정원은 180명, 그러나 실은 400명이 타야만 한다”는 첫 번째 문제부터 보통의 덧셈, 뺄셈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쓰러지고 아버지가 사라지는, 계산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나’와 가족은 ‘다행히’ 제로섬의 균형을 회복하게 되지만, 그것으로 위기로부터 ‘안녕’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수학’은 나 몰라라 하고 ‘산수’만 할 줄 아는 ‘나’는 생계유지 역시 당연히 산수로 풀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그 문제는 산수로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면 ‘다행히’ 혹은 ‘저절로’라고 설명할 도리밖에. 만약 그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수학’에 ‘형이상학’을 보태야만 한다. “실제의 착취는 당연한 모습으로, 프라이드를 키워주며, 작은 성취감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며, 요란한 박수 소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형이상학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거야”와 같은 식인데, 이건 뭔가 속임수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그랬거나 말거나, 그런데 어찌라구……

박민규 소설의 세계는 다분히 결정론적이다. 전지구적 자본의 시대를 맞아 활짝 개화된, 『지구영웅전설』과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의 미국 자본의 음모나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의 산수, 「코리언 스탠더즈」의 ㉠가 그런 사례로 적당할 것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결정론적인 것은 또 아니다.

「야쿠르트 아줌마」에서 후기산업사회의 질병인 변비로 고생하는 고단한 인간인 ‘나’가 변기 위에서 읽는 ‘농담 경제학 사전’은 ‘형이상학적 수학’이라고 할 만한 경제학에 대한 농담을 늘어놓는다. 농담의 요지인즉, 예측 불가능한 이런저런 시장 변화는 ‘경제 불가지론’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그의 이론은 더 이상 세계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했다. 1929년, 아담 스미스호 격침”, “시장의 변화는, 그러나 케인즈의 이론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와 같은 식이다.

박민규의 소설에 소위 자본의 세계 지배 — 세계라고 해봤자 고작 지구의 일부분을 가리킬 뿐이겠지만 — 와 같은 마스터 플랜이 깔려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불안 사회일수록 기승을 부리는 음모론에 대한 대중의 선호에 쉽게 부합하는 동시에 지나치게 상식적이고 단순하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지만, 이런 평가에 앞서 그 플랜이란 것이 뒤집히기 위해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박민규 소설은, 요컨대 ‘알고는 있지만, 설마/그렇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어쩔 수 없이……’라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어찌라구’로 일관한다.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의 표현을 빌자면, ‘그랬거나 말거나’라고 해도 무방하다. 도도새의 멸종 장면에서 시작하여 산업혁명, 대공황, 케인즈로 이어지는 근대 자본주의사에 대해 서술하다가 “도도새의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었다. 인류는 그제야 새의 멸종이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면서 은근슬쩍 변비를 끌어들일 때, ‘그런데 어찌라구’의 태도는 극대화된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미국과 EU는 아시아권의 보호무역체제에 보복사찰을 감행하고, 한국의 수출전선에 비로소 청신호가 쏠린다. 하고, 정부는 고령화사회를 앞둔 새로운 복지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최초, 중국의 우주인이 우주에서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 아무튼 명심해라. 니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건, 지금 이 세상에 똥 못 뉘 고통받는



박민규의 문체를 굳이 ‘말’이라고 부르고 싶은 이유는 그의 소설에 언문일체로서의 글에 맞춰진 ‘자기’와는 다른 ‘자기’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체로부터 시작했지만, 이 글은 박민규 소설의 ‘자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카스테라』, 168쪽)

세계 지배를 꿈꾸는 ‘니들’의 경제학은 변비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 이 대목이 경제학이 변비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는 조소를 드러내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경제학이 반드시 변비까지 고쳐줘야 한다는 기대 역시 좀 난감하지 않는가? 그러나 「야쿠르트 아줌마」의 ‘나’는 끝내 그 기대를 접지 않고, 느닷없이 방문한 야쿠르트 아줌마에게 배달을 신청한다. ‘농담 경제학 사전’에 의하면 야쿠르트 아줌마는 어느 경제학자도 예상치 못한, 단연 최고의 돌발변수였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손’이기도 하다. 물론 농담 경제학이든 야쿠르트 아줌마든 다 농담일 뿐이다. 엄밀히 말하면, 필연적이고 결정론적인 법칙을 찾으려는 경제학

을 무력화하는 우연의 가능성에 대한 농담이 ‘나’의 보이지 않는 손인 야쿠르트 아줌마를 만들어냈다고 할 것이다.

필연과 자유의 척력으로부터 나오는 소설의 힘

다시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로 돌아가 보자. ‘나’에게 ‘산수’가 필연적인 조건이라면, 그것은 ‘나’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어떤 특정한 사건들의 계열이 ‘산수’로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반면에 “화성인들은 좋겠다. 그해 여름은 너무 더워서, 나는 늘 그런 상념에 젖고는 했다”에서처럼 우주 전체의 차원으로 ‘상념’을 확장하면, 지금 이 세계에서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의 계열은 무수히 많은 가능세계(possible world) 중 하나일 뿐이다. 물론 그런 가능세

Writer
Park
Min
Gyu

한복보존안과를 리듬 (2DSMS)을 넘겨, 싱가포르 아트 페스티벌 초청공연 가말레이 자화와 함께 보는 클래식 발레(저서) 춤 전문 웹진 (출송처가) 제7회 드림 앤 비전 전시-출판 "바람의 방" 남양록선 씨마미 댄스퍼포먼스 (원-개지는 물보다 진하지) 2005 박해준의 신세계 이기는 공간 2005 새겨 넣은 우유식재 제7회 청소년 발레페스티벌 드라마가 있는 현대무용 공연 변신! MC10주년, 춤으로 클러킹하는 동화 기술자언어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춤 제7회 대한민국대우뮤지엄 관객이 있는 소설 프로젝트—그들은 만나지 않았다 천천히의 우리춤 2005 2005 젊은 작가인 2005 서서울시무를 위한 우유 사회공헌 김현우 발레문화축제 '발레야 놀자~ 피티와 너' 제20회 정기공연 창작씨네티벌 LD무용단 기획공연(장터마을을 위한 작은 무대) 한국현대발레포리 "Contact" 한울무용극정기공연 춤으로 무뎠고 고된 정서적 춤 2005 (shout) 2005 가라니는 내년 2005년 중 오무형문화재단 제 40호 현학현대합설무 정기공연 그린 커뮤니티 내년 그룹 2005 전국예과 춤페스티벌 마포구 의새 계층을 위한 문화 콘서트 2005 씨아워 은 우주 레퍼토리 공연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2005 조남규초점음 무용단 정기공연 "이치우 흙뿌릴제" 전통춤 지킴이 박사후무용단 휴가 못만 벽조들 한강공원에는 있다 2005 송홍숙 총의여정 포스트 신간연가부터 당신과 춤추는 시류 아리아 조각가 무용단 '전통의美' 최희우 찬란상 문= Gate 창작성을 위한 해설이 있는 현대무용 음악가는 설치전 '백사산전' 발레에대한다 지방소

[illegible]

지난해 서울문화재단은 248개 문화예술 창작활동, 24개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사업, 27개 청소년 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20,000명의 시민과 함께한 서울광장 축제 '일상의 여유', 40,000명의 관객과 함께한 서울열린극장 창동의 공연, 31개 공공도서관과 함께한 '책읽는 서울' 캠페인 등을 전개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합리적인 지원과 창의적인 문화사업으로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고 시민 누구나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삶을 누리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서울
그 중심에 **서울문화재단**이 있습니다